

1 서론 Introduction

파에시안 선원들은 잠자고 있던 오딧세이(Odyssey)를 그의 고향인 이타카 해안에 하선시켰다. 그는 20 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시달려왔던 자이다. 오딧세이는 자신의 고향 땅에서 잠에서 깨어났는데 그가 어디있는지 알지 못했다. 이타카는 익숙치 않은 면모를 보여주었다; 멀리 뻗어 있는 도로, 조용한 만, 바위와 벼랑을 그는 알아보지 못했다. 오딧세이는 두 발을 딛고 일어나 자신의 고국 땅을 응시하면서 이렇게 울부짖었다. “아!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건가?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건가?” (호머의 오딧세이에서)

호머가 3 천 년 전에 오딧세이가 느낀 감정을 묘사해 놓았던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은 어느 기간 동안 타문화를 경험하고 자신의 고국으로 재입국할 때도 오딧세이와 같은 감정을 경험하곤 한다. 더욱이 어떤 사람은 이런 감정을 느끼는데 20 년까지 걸리지도 않는다. 지리적인 장소 변화는 신체적으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더 멀게 느껴지는 심리적 전환을 수반한다. 이런 전환은 문화사이를 넘나드는 사람들이 경험하는데 이들 중에는 군, 외교, 사업, 선교와 관련되어 일하는 자들이 포함된다.

인생의 변화가 있을 때 변화를 "프로세스(process)"하면서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시간을 두고 보는 것이 좋다. 거의 4 천 년 전 하나님의 사자가 인생 전환기에 있었던 하갈을 찾아와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눴다.

천사: “하갈아 네가 어디에서 왔느냐?”
천사: “너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갈: “저는 (나를 학대하는) 여주인을 피하여 도망하나다.”
천사: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이것은 우리 삶의 전환을 보는데에 좋은 개요를 제시한다: 우리가 어디 있어 왔는지, 어디로 가야하는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물론 우리가 실제로 지나간 시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하지만 추억으로 돌아가서 일어난 일에 대해 생각하고 그 경험들이 우리 삶 어디에 맞는지 볼 수 있다.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이 처음 경험한 변화는 문화적 차이가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 제자들을 불러 모았다. 누가복음 9 장 1-10 절(마태복음 10-14 장과 마가복음 6 장에서도 같은 내용이 있다)에서 전도여행 후 첫 “재입국”에 대한 요약은 볼 수 있다. 예수님은

- 그들을 부르셨고 (1 절);
- 그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셨고 (1 절);
- 그들에게 전파하며 고치도록 명하셨고 (2 절);
- 무엇을 가져 가고 무엇을 기대할 것인지에 대해 주의를 주셨다 (3-5 절).

그 다음에 그들은 전도여행을 떠났고 (6 절), 돌아와서 예수님께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 보고했다. 물론 그들은 우리의 선교기관이 우리가 선교지에서 무슨 사역을 했는지 알고 싶어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알고 싶어 해서 보고한 것은 아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나누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했기 때문에 보고했다. 그 후에 예수님은 그들을 베데스다 근방의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서 제 1 회 “재입국 수련회(reentry retreat)"/“전환 워크숍”(10 절)을 해주셨다. 당신에게 무엇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하는 것은 좋다. 특히 당신과 유사한 경험을 한 다른 이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사도행전 14 장 마지막 부분에는 크리스찬 선교사들이 기록한 첫 번째 타문화권 재입국이 있다. 거기에서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고향교회”에 돌아온 것을 읽을 수 있다. 그들은 그들의 사역 1기를 마쳤고 지역교회에 함께 모여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고했다.

그들은 두 가지를 보고했다 (27 절).

-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모든 것에 대해 보고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선교본부에 도착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만났을 때에도 같은 일을 한 것을 주목해 보라. 당신의 후원자와 책임자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하는 것이 좋다.
- 둘째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타문화권 사람들을 회심하게 했는지에 대해 보고했다. 또한 그들이 이 교회 저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도 같은 일을 한 것을 주목해 보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을 보고하는 것이 좋다.

당신이 고국에 재입국할 때 다음같은 세 단계의 과정을 겪을 것이다.

- 첫 째는 당신의 선교지 문화로부터의 “떠남”의 과정인데 이는 당신의 거기와의 연결이 종식되었다는 뜻이다. 이것은 당신이 고국으로 떠나기 위한 여행을 준비할 때 시작된다.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뒤에 남겨진 것들을 정말로 “떠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둘째로 당신이 떠나는 선교지 문화와 되돌아가는 고국 중 어느 것도 집처럼 편안히 느껴지지 않는 “둘 사이(in between)”의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 당신은 살 집이 있다해도 실제로는 “집없는 자”이며, 이 과정은 당신이 고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부터 시작된다.
- 세 번째는 당신이 고국에 “들어가는” 단계다. 이는 거기에서 삶을 수립하기 위해 다시 “시작하는” 단계다. 이 단계는 당신이 자기 집에 있는 것같은 편안함을 다시 느낄 때까지 수 개월 혹은 그 이상이 걸릴 수 있다.

† 이 브로서는 저자 로날드 코테스키 박사의 원문(Ronald Koteskey: www.missionarycare.com)을 저자의 승인 하에 올네이션스선교센터(www.anmcusa.org)에서 번역한 것으로 한국어 판권은 올네이션스선교센터에 있습니다.